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에 위치하며, 규모는 그냥 기숙학교 같은 느낌입니다. 시설은 와이파이를 비가 오면 안 되고, 바퀴벌레나 개미가 정말 많고, 밥은 그런데로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 밖에 없으시고, 같이 함께 온 친구들도 정말 좋은 친구들이어서, 4주 동안에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업	1:1수업과 팀별 수업으로 진행되며, 수업방법은 자신의 영어실력의 따라서 다르며, 선생님들은 각시간대 수업마다 다르시며, 과제는 본인이 정말 싫어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안내주실 것입니다. 수업준비는 책과 필통과 물을 먹을 수 있는 텀블러정도만 있으면 되고, 수업은 정말 각자의 실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Activity	fun Friday 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활동이 있는데, 핑크색옷 입기 니

	<p>어삭스 신기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것들을 하지만, 어차피 한번밖에 안입을꺼 일단은 저희가 요번에 했던 핑크색옷은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할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안바야 코브라고 리조트를 가는데 수영복은 필수이고 정말 예쁜 곳이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방수팩을 가져가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밥은 꼭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드세요 뷔페별로 맛없다네요. 그리고 요트는 저희 기수에는 타지 못하였습니다. 기상이 안좋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충남 대학교는 요트를 탔었지만 이상하게도 저희는 충남대에 밀린 것인지 타지 못했네요 ^^ 평일에도 수업을 미루고 충분히 탈 수 있었을텐데.. 아쉬웠습니다. 추가비용은 환전 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50만원 정도환전해서 440달러를 가져갔는데, 마지막 주에는 정말 부족했지만 정말 돈을 많이쓰고, 밖에 많이 나갔는데도 정말 많은 것을 사지 않을거면 저 정도면 충분히 모든 액티비티 비용을 내고도 남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비가 정말 많이 왔고, 샌달 꼭가져가세요. 와이파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 되고, 거기 데이터를 쓸 뻘에 현지에서 로밍데이터를 신청하고 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안전	마닐라를 가보고 수빅을 보니 수빅은 나름 안전한 동네인 것 같았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은 그냥 저냥 지낼만 합니다. 통금시간은 꼭 지켜야하고 층간이동은 금지입니다. 그냥 저냥 지낼만 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만 학교식당에서 먹고 맛있으면 그냥 안먹고 저녁에 나가서 맛있는거 먹었습니다. 스테이크나 양식 정말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나가서 맛난거 많이드세요.

교통	주로 FB를 이용했는데, 제한 인원이 있어서 택시도 가끔 이용했습니다. 교통편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용	478000	
바비큐 비용	10000	
필리핀 공항세	12000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여권 잘 챙기시고, 엄청 짐 많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옷 적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선물 제발 꼭 한국에서 파는 걸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생님들 선물을 준비 하지 못 한게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리핀 선생님들 정말 좋고, 친구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필리핀 문화도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하지만 가능 하면 캐나다를 추천합니다.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필리핀은 정말

좋았지만, 다른 것들이 불편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필리핀 문화, 공부 등 만 좋았습니다. 처음 가기 전 들었던 말과, 도착해서의 말이 달라서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필리핀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신감을 많이 얻고 왔고, 나름 영어실력도 늘었던 것 같네요.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요일 ACTIVITY DAY

사진설명



CF 촬영 중

사진설명

사진설명



그룹 선생님과 마지막 시간

사진설명